

【연구논문】

##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정치적 이력

배영수  
(서울대)

### 1. 쟁점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끔 쓰는 용어 가운데 “미국인의 생활방식”(American way of life)은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어구이다. 그것은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넓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에 나온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저 충격적 사태에 관해 말문을 열며 “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방식, 우리의 자유 자체가 계획적이고 격렬한 일련의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했다.<sup>1)</sup> 여기서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어구에는 더욱 흥미로운 요소도 있다. 그와 같은 어구는 “영국인의 생활방식”이나 “몽골의 문화와 생활방식”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쓰이지만, 미국에서만큼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

---

1) Text of Bush's Address, 11 September 2001. (2011. 7. 18; [http://articles.cnn.com/2001-09-11/us/bush.speech.text\\_1\\_attacks-deadly-terrorist-acts-despicable-acts?\\_S=P M:US](http://articles.cnn.com/2001-09-11/us/bush.speech.text_1_attacks-deadly-terrorist-acts-despicable-acts?_S=P M:US)) 다음 자료도 참고하라. Richard Johnson, “Defending Ways of Life: The (Anti-)Terrorist Rhetorics of Bush and Blair,” *Theory, Culture & Society* 19: 4 (2009): 211-231.

는 것 같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1930년대 중엽부터 50년대 말까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한 동안 잊힌 듯 하더니 80년대부터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미국 내셔널리즘의 특징에 있다고 한다. 많은 나라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혈연관계나 역사적 경험에 의지하지만,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널리 공유되는 문화나 가치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출생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미국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인이 되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널리 공유되는 문화나 가치를 스스로 수용할 때라는 것이다. 사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국민 통합의 구호로 상당한 기능을 발휘했고, 이는 아래에서 언급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것이 온전한 설명은 아니다. 이민이 건설한 국가는 아메리카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다수 존재하지만, 미국만큼 생활방식을 중시하는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어쩌서 미국인들은 유난히 생활방식을 중시하는가? 이 의문을 풀자면 먼저 그것을 역사학적 문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이라는 어구는 언제, 어떻게 통용되었는가? 그것은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었는가? 또 그 함의와 용도는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어구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1990년대 중엽이었으니,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업적은 그리 많지 않다. 연구의 범위도 이 어구가 탄생한 1930년대 중엽부터 일반적 용법이 확립된 1950년대 후반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난 반세기가 경시된다. 그래도 최근 수년 사이에 그에 관한 단행본 연구서가 2권이나 출간되었으므로, 이 어구는 미국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이력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폰즈-울프(Elizabeth A. Fones-Wolf)의 선구적인 연구 덕분이다. 그에 따르면, 그 어구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미국인들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쟁을 벌이던 1930년대 중엽이었다. 기업계와 보수파가 개인과 자유, 기업과 경쟁, 시장과 화합 같은 고전적 가치를 고집한 반면에, 노동계와 진보파는 평등과 개혁, 재분배와 국가개입 등, 그와 다른 가치를 역설했다는 것이다. 그런 대립은 2차대전을 계기로 보수파의 승리로 귀결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적대국가에 비해 자유와 풍요를 누린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기업계와 보수파가 그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냉전이 시작되자 그들은 그런 선전을 계속하며 “자유로운 기업”과 경제성장을 강조했고, 노동계와 진보파는 보통 사람들도 성장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보수적인 함의를 지니는 어구로 정착했다.<sup>2)</sup>

이렇게 유권만 살펴봐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정치적 언어라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학자에 따라 초점이나 강조점은 다르다. 찰스 맥거번(Charles F. McGovern)은 그런 대립 구도 대신에 소비문화에 주목하며 미국인들의 국민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대중소비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문화가 미국의 특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이 대공황에 이어 2차대전이라는 국가적 난관을 겪게 되자, 광고계 종사자와 소비자 운동가들은 소비가 행복의 토대이며 대중소비가 미국의 특징적인 문화라고 역설했다. 맥거번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미국인들을 통합하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던 이 이데올로기를 “물질적 국

2) Elizabeth A. Fones-Wolf, *Selling Free Enterprise: The Business Assault on Labor and Liberals, 1945-60* (Urbana: Univ. of Illinois Pr., 1994).

민주의’라 부른다.<sup>3)</sup>

이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조하기가 어렵다. 맥거번은 국민적 정체성에 주목하며 정치를 “정치적인 것”이라는 넓은 뜻에서 이해하는데, 이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지니는 넓은 외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좁은 뜻의 정치를 경시한다. 그래서 그의 연구에서는 저 어구가 정치색을 얹게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밝히듯이 사실과 다르다.

반면에 웬디 월(Wendy L. Wall)은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띠는 정치색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가 2008년에 발표한 『“미국식”의 형성 과정』은 미국사학회(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에서 저술상을 받았을 정도로 충실하고 면밀한 연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폰즈-울프가 말한 대립 구도 위에 이민과 종교에 토대를 두는 갈등을 덧붙여 취급한다. 바꿔 말해,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20세기 중엽 미국에서 대두한 이념상 합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과 노동계를 토대로 삼는 개혁 진영 사이의 타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개신교회가 대변하는 주류사회와 가톨릭교회나 유대교회가 상징하는 다양한 이민 집단 사이의 화합도 포괄된다.<sup>4)</sup>

월의 견해는 아래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이민과 종교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월은 분명히 넓은 시야를 갖고 정치를 바라보며 이민과 종교를 거론하는데, 이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3) Charles F. McGovern, *Sold American: Consumption and Citizenship, 1890-1945*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 2006).

스티븐 왓츠는 월트 디즈니에 관한 연구에서 맥거번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Steven Watts, *The Magic Kingdom: Walt Disney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Columbia: Univ. of Missouri Pr., 1997).

4) Wendy L.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The Politics of Consensus from the New Deal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Oxford: Oxford Univ. Pr., 2008).

도움이 된다. 사실, 이 어구는 20세기 중엽 미국에서 보수 진영과 개혁 진영 사이의 타협뿐 아니라 주류사회와 이민 집단 사이의 화해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다. 냉전 시대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소련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체제로 질타하면서 청교도 신앙을 비롯해 종교를 미국 문명의 요체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월의 견해는 납득할 수 있다.<sup>5)</sup> 그렇지만 이민과 종교에 따르는 갈등이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비중을 지니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월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부차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그에 따라 보수 진영과 개혁 진영 사이의 타협은 폰즈-울프의 해석과 달리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물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이다. 관계 자료를 모두 섭렵한다 해도, 시각이나 접근방법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을 취급하는 다른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경시된 측면을 깊이 파헤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 가운데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이력 가운데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이력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시대를 다루기 위해, 여러 대중매체를 널리 살펴볼 생각은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런 방대한 작업이 아니라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다양한 용법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것은 신문과 잡지만 검색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존 연구에서 경시된 측면은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초기 이력에도 있다. 초기 이력은 폰즈-울프가 간략히 운곽을 그려 놓았고 웬디 월이 구체적인 용례를 찾아냄에 따라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월은 그것이

5) 20세기 중엽에 있었던 다양한 종교 사이의 화해에 관한 논의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ill Herberg, *Protestant-Catholic-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New York: Doubleday, 1955).

6)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6-8.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통용 과정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과제이다.

## 2. 통용 과정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간략하게 “미국식”(American way)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사실은 이 후자가 먼저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래 전에 간행되었지만 아직도 미국식 영어를 연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미트퍼드 매튜스(Mitford M. Mathews)의 사전에서 드러난다. 거기서 매튜스는 “미국식”을 풀어서 “미국인의 생활방식”으로도 쓴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미국의 관습과 전통에 합치하는 방식”이라 규정했다. 그리고 그런 용례가 각각 1885년과 1944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sup>7)</sup>

최근 연구는 이들 어구의 통용 과정이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웬디 월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식”이라는 어구는 1930년대 중엽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의 지면에서 1925년부터 32년까지 8년 동안 725번 등장했지만, 1933년부터 42년까지 10년 동안에는 2,230번이나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전에는 대개 ‘미국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문에서 등장하거나 ‘미국에서 성행하는 여러 방식’처럼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던 반면에, 이후에는 흔히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대문자로 표기되기도 했다. 또 “미국식”이나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제목으로 삼는 저술이 발표되었다.<sup>8)</sup> 이렇게 사용양상에 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인 변화가 있었으므로, 그런 어구가 언제,

7) Mitford M. Mathews, ed., *A Dictionary of Americanisms on Historical Principles*, 2 vols.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51), I, 26.

8)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15.

어떻게 등장했는지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sup>9)</sup>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것은 통용 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것은 1930년대 중엽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웬디 월은 어구의 통용 과정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비슷한 시기에 통용되기 시작한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이나 “미국인의 신조”(American Creed)와 함께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할 뿐이다. 사실, 월의 관심사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지니는 의미가 1930년대에는 유동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후에 상이한 용법이 단일하게 통합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있다. 더욱이 필자의 과문 탓인지는 몰라도, 다른 연구자들도 어구의 통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통용 과정은 심지어 오해로 둘러싸여 있다. 웬디 월에 따르면, “미국식”과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1937년부터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1장과 제2장에서 이들 어구의 대두 과정을 서술하며 그 해에 일어난 두 사건에 주의를 환기한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1937년 2월 켄터키에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을 취재한 기사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주간 화보 잡지 『라이프』에 게재된 것이다. 2월 15일자로 발행된 제2권 7호의 9쪽에는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다란 흑백 사진이 「홍수 이재민이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 있다」라는 제목 아래 시작되는 기사를 압도하고 있다. 사진의 상반부는 대형 광고판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백인 가족--젊은 부부와 어린 두 자녀--이 개까지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며 여행에 나선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이라는 제목이 고딕체로 쓰여 있고, 그 옆에는

9) 20세기 초의 용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John F. McClymer, “Gender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Women in the Americanization Movement,”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0: 3 (Spring 1991): 3-20.

“미국식만한 것은 없다”는 구호가 필기체로 쓰여 있다. 사진 하반부에는 이 광고판 아래에서 흑인들이 굶주리고 지친 표정으로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뚜렷한 대조를 담고 있는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작가 마가렛 부어크-화이트(Margaret Bourke-White)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sup>10)</sup>

1937년에 일어난 다른 하나의 사건은 그해 봄에 대중적 월간지 『하퍼스』에서 상금 1천 달러를 내걸고 “미국식”을 주제로 수필을 공모한 일이다. 거기에 지원한 수필이 모두 1,570 편이었다는 것, 또 그 가운데 4 편이 『하퍼스』에 게재된 데 이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은 두 어구가 1937년부터 널리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sup>11)</sup> 부어크-화이트의 저 유명한 사진이 수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국식”에 대한 냉소를 자극했다면, 『하퍼스』의 현상 모집은 문제의 어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청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런 성찰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조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월은 두 어구의 사용 빈도가 1933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뉴욕 타임스』의 기사 이외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주제로 삼는 저서와 논평을 근거로 동원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1937년 이후에 간행된 저술이다.<sup>12)</sup>

그런 사건 덕분에 “미국식”과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주목을 끈 것은 분명하지만, 웬디 월이 시사하듯이 그때부터 이들 어구가 회자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들 어구는 이미 1936년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1936년 여름과 가을에 전개된

10) John Tagg, “Melancholy Realism: Walker Evans’s Resistance to Meaning,” *Narrative* 11: 1 (Jan. 2003): 3-77, 9-11.

웬디 월은 이 사진이 『포천』에 처음 게재되었다고 서술하는데(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57), 이는 분명히 오류이다. 부어크-화이트는 1936년 『라이프』의 창간과 더불어 그리로 직장을 옮겼다. “Bourke-White, Margaret,” *Britannica Biographies*. (2010. 10. 1)

11)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15-17.

12) *Ibid.*, 298, notes 1, 2, and 4.



대통령 선거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화당 후보 앨프리드 랜든(Alfred M. Landon)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맞서 어려운 선거전을 펼쳤다. 그는 성격이 겸손하고 온건했을 뿐 아니라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선거전에서 그가 역설한 것은 루즈벨트 행정부가 구호사업이나 경제부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정부 기구를 확대하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결국 뉴딜 정책이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위협한다는 것” 바꿔 말해 “자유로운 기업을 근간으로 삼는 경제체제뿐 아니라 심지어 대의제에 토대를 두는 정부 형태까지도” 위협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랜든이 제안한 것은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수호하자”는 구호였다. 그것은 선거전 중반에 보수파가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시카고 트리뷴』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투표일까지 남은 날짜를 헤아리며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수호할 수 있는 날이 0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전했다.<sup>13)</sup>

그와 같이 루즈벨트와 뉴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미국인의 생활방식”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는 사례는 적어도 1934년부터 나타난다.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는 법률가 윌리엄 호지스(William V. Hodges)가 그 해 4월 21일자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기고한 정치평론이다. 거기서 그는 루즈벨트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적자와 부채에 의지해 막대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들이 연방정부의 구호사업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이나 기업가 같은 다른 많은 미국인들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야 할 정도로 연방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썼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지금까지 추진된 조치들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13) Alfred M. Landon, “The American Way of Life: Two Addresses,” *Vital Speeches of the Day*, 1 Sept. 1936, 732-737 (인용은 733); Arthur M. Schlesinger, Jr., *The Politics of Upheaval*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601-625.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150년 넘게 자리 잡았던 미국인의 생활방식과 발전상을 회복시키고 재할시키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이다.”<sup>14)</sup>

따라서 1934년 봄에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현상을 파악하는 개념을 넘어서 견해를 주장하는 이념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용법은 그 해 여름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에 창설된 미국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듀퐁 가문을 비롯해 유수한 대기업을 이끌던 사람들 가운데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에 집착하던 이들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였다. 그들이 보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때문에 흑인들이 오랫동안 지키던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등, 뉴딜 이후에 미국은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화당은 193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따라서 기존 질서를 위기에서 구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중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 필요에 따라 수립된 미국자유연맹은 자율적인 개인, 자유로운 기업, 규제 없는 시장 같은 19세기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는 이 단체에 관한 소식을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36년 11월까지 28개월 동안 무려 서른다섯 차례나, 그것도 제1면에서 취급했다.<sup>15)</sup> 온건한 앨프리드 랜든은 그런 미국자유연맹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고, 공화당도 연맹을 정치적 부담으로 보고

14) William V. Hodges, “Realities Are Coming,” *Saturday Evening Post*, 21 April 1934, 5-7, 44, 46. (인용은 46)

15) Frederick Rudolph, “The American Liberty League, 1934-1940,” *American Historical Review* 56: 1 (Oct. 1950): 19-33.

미국자유연맹의 창설을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해석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Sheldon Richman, “A Matter of Degree, Not Principle: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Liberty Leag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6: 2 (Spring 1982): 145-167.

1936년 대통령 선거전에 개입하지 않도록 만류했다. 그래도 연맹의 지도자들은 드러나지 않게 랜든을 지지했다.<sup>16)</sup>

그렇다면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웬디 월의 해석과 달리 좁은 뜻의 정치적 언어로 대두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월은 자신의 연구에서 랜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랜든과 1936년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지 않는다. 미국자유연맹에 관해서도 한 차례만 가볍게 언급할 뿐이며, 그것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이라는 어구가 아니라 뉴딜을 비판하는 보수적 기업인을 거론하면서 언급할 뿐이다. 반면에 월은 전국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단체가 부어크-화이트의 저 유명한 사진에 등장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1937년부터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널리 유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런 역할은 뉴딜에 대한 비판에 근원을 두고 있었으므로, 월이 좁은 뜻의 정치를 경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는 이 어구가 일찍이 정치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본래 그것이 지니고 있던 정치성을 상당히 탈색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지니는 짙은 정치성은 이 어구에 대한 개혁 진영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보수파가 “미국식” 운운하며 루즈벨트의 개혁 정치를 비판했기 때문에, 개혁 진영에서는 그에 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런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4년 봄부터 1936년 가을까지 조성되어 있던 정치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공황은 자율적 시장 기제를 강조하던 미국의 경제체제뿐 아니라 개인과 방임을 비롯해 경제체제를 밀반침하던 관념도 뒤흔들어 놓았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자유연맹을 비롯해 낡은 가치에 집착하던 수구세력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치는 실업이나 파산의 위협에 시달리던 대다수 미국인

16) Richman, “Matter of Degree,” 148-149.

17)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49.

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따라서 구호나 취업, 또는 용자 같은 긴급한 과제가 부각되었지만, 병든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는 유럽으로 눈을 돌려 러시아나 독일의 실험에서 대안을 찾았지만, 대다수는 거기서 “전체주의”의 폐단을 보았다. 그런 지적 방향 속에서 루즈벨트는 기존 질서에 대해 결별을 선언하면서도 미래에 관해서는 모호한 청사진밖에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전통적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체계적 이념이나 정연한 논리가 아니라 경기회복과 사회개혁에 기여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추진했을 뿐이다. 그 때문에 뉴딜은 보수파로부터 “사회주의”나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산업 부흥과 농업 개혁 같은 핵심적 조치는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루즈벨트와 뉴딜 옹호자들은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는 물론이요 사회주의나 파시즘 같은 유럽의 실험과도 구분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면서,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세에 대비해 그 정당성을 설명해야 했다.<sup>18)</sup>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루즈벨트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관해 깊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 대통령 선거는 잘 알려져 있듯이 그가 거둔 기록적 대승으로 끝났지만, 그런 결과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선거전에 뛰어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업계를 비판하며 뉴딜 정책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호소해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선거전에서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관해 자주 언급하지 않았어도, 보수 진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밝혔다. 그 해 6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그는 개혁 정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건국 조부들의 소망과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거대한 기업을 지배하는

18) Schlesinger, *Politics of Upheaval*, 645-657.

사람들이 독점을 통해 물질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부에 대한 영향력까지 넘보고 있었다.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1776년에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1936년에도 국민에게 폭넓은 자유를,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되돌려 줄 것을 맹세해야 한다.”<sup>19)</sup>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지니던 짙은 정치성은 루즈벨트의 연설뿐 아니라 뉴딜 옹호자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농무장관 헨리 월리스(Henry A. Wallace)가 1936년 7월 『스크라이브너스』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 아래 발표한 평론이다. 이 글은 루즈벨트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말한 것을 지식인들에게 매력이 있을 만한 논설문으로 옮겨 놓은 듯이 보인다. 그 요점은 대공황이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라는 것, 미국은 유럽인들이 실험하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대신에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전통에 맞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 건국 조부들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보수파가 생각하듯이 헌법과 독립선언서 같은 건국 문서에 집약되어 있지만, 건국 이후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 때문에 대공황이라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리스 같은 개혁파에게 저 어구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구호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sup>20)</sup>

---

19) Franklin D. Roosevelt, “A Rendezvous with Destiny: The War Goes on,” *Vital Speeches of the Day*, 15 July 1936, 634-636. (인용은 634, 635). 1936년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Schlesinger, *Politics of Upheaval*, 601-644; David M. Kennedy, *Freedom from Fear: The American People in Depression and War, 1929-1945* (New York: Oxford Univ. Pr., 1999), 278-286.

그렇지만 개혁파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보수 진영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웬디 월은 1937년 봄 『하퍼스』에서 “미국식”을 주제로 수필을 현상 모집함에 따라 이 어구가 더욱 널리 확산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수필 공모의 취지를 간과한 표면적 관찰에 불과하다. 뉴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하퍼스』는 “미국식”을 보수파와 달리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잡지의 고정 칼럼니스트로서 심사평을 썼던 역사가 버나드 드보토(Bernard DeVoto)는 그 취지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을 받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미국식”이라는 어구를 너무 자의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어구가 예를 들어 노동조합 가입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에 어울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조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상 모집의 취지는 그래서 그 어구에 어떤 역사적 연속성 같은 것이 있는지, 오늘날 세계의 주요 현안에 관한 해결책으로 자생적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인들의 사고와 행위에 어떤 토착적인 기운이나 기세가 있는지, 우리가 독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을 만큼 미국의 과거와 현재에 어떤 특이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공모의 과제는 말하자면 예언이 아니라 진단이었다.<sup>21)</sup>

줄여 말하자면, 드보토는 랜든과 보수파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이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묻고 있었다. 바꿔 말해, 『하퍼스』는 진보적인 “미국인

20) Henry A. Wallace, “The Search for an American Way,” *Scribner's*, July 1936, 22-27. 이 시기에 월리스가 지니고 있던 생각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Theodore Rosenof, “The Economic Ideas of Henry A. Wallace, 1933-1948,” *Agricultural History*, 41: 2 (April 1967): 143-154.

21) Bernard DeVoto, “The Easy Chair: Notes on the American Way,” *Harper's*, May 1938, 669-672. (인용은 669)

의 생활방식”을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퍼스』의 수필 공모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라는 어구를 놓고 뚜렷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에서는 개혁파가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를 지지했던 노동자와 이민, 그리고 흑인을 대변하며 개혁의 대의에 따라 그 어구의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런 시도는 결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니, 저 “뉴딜 연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또 산업별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가 개혁파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자유연맹이 1936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쇠퇴했지만, 기업인들이 전국제조업자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를 통해 보수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1930년대 중엽에 통용되기 시작할 때 정치적 언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그것도 꽤 단순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용의 계기는 1934-36년에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민과 종교는 웬디 윌의 해석과 달리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물론, 그 시기에 미국인들은 주류사회와 이민 집단의 관계와 다양한 종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1930년대 중엽의 정치적 논쟁에서, 특히 연방 차원의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정치적 담론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경제체제의 재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통용 과정에서 이민과 종교는 부차적인 주제가 아니라 차라리 주변적인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비중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래의 해석과 달리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통용 초기에 단순한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 3. 근래의 용법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얼마 가지 않아 그런 정치성을 잃어버린다. 대전과 냉전 속에서 대다수 미국인들이 보수파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에 동조함에 따라, 개혁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쇠퇴하고 그에 관한 정치적 논쟁도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1950년대 말에 이르면 보수적 관념이 확고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해석은 20세기 중엽 미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된 동원 체제는 군수물자의 생산을 지휘하는 기업인들에게 강력한 발언권을 가져다 준 반면에,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을 비롯해 단체행동을 묶는 족쇄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그 체제의 정신적 토양에 해당하는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혈통이나 역사 대신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내세우며 미국인들이 널리 공유하는 가치를 강조했다. 광고계 종사자를 비롯해 선전 사업을 주도하던 기업인들은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독일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미국의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참전 동기를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찾는 수많은 청년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했다.<sup>22)</sup> 그런 질서는 종전 직후에 시작된 냉전 덕분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동계가 사회개혁에 대한 희망과 함께 기업인의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접고 경제성장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 지속된 장기 호황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며 대중소비를 뒷받침했다. 당대의 대중문화에서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교외의 단독

22)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63-159; McGovern, *Sold American*, 301-365; Robert B. Westbrook, *Why We Fought: Forging American Obligations in World War II* (Washington, D.C.: Smithsonian Books, 2004); Dannagal Goldthwaite Young, “Sacrifice, Consumption,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Advertising and Domestic Propaganda during World War II,” *Communication Review* 8: 1 (Jan.-Mar. 2005): 27-52.



주택에 거주하는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거기서는 자유와 풍요뿐 아니라 근면과 절제, “진정한 여성상” 같은 19세기적 가치도 부각되었다. 그런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미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해외에 널리 전파되었다. 냉전이란 어떤 뜻에서는 생산력과 생활수준에 관한 경쟁이었으므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이 누리는 시민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집중적으로 선전했다. 이 보수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1959년 7월 모스크바에서 닉슨과 흐루시초프가 이른바 부업 논쟁을 벌였을 때 압축된 형태로 나타났다.<sup>23)</sup>

따라서 종래의 해석에서는 개혁파가 주장하던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의 대중문화 속에서 나중에 미국을 넘어 세계를 휩쓰는 대항문화(counter-culture)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탈, 범죄, 또는 폭력 같은 주제에 집중하던 이른바 “필름 느와르”에서 뚜렷하게 나타내는데, 이는 미국학 연구자 래리 메이(Lary May)가 2000년에 발표한 『저장한 내일』에서 전개하는 핵심적 논지이다. 그에 따르면, 냉전 시대에 미국 영화계는 미국인들이 계급이나 인종으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그리는 데 치중함으로써 보수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런 가치를 거부하는 영화도 “필름 느와르”라는 조류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에텐의 동쪽』과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 『위험한 질주』와 『워터 프론트』

---

23) Fones-Wolf, *Selling Free Enterprise*;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163-290; Robert Griffith, “The Selling of America: The Advertising Council and American Politics, 1942-1960,” *Business History Review* 57: 3 (Autumn 1983): 388-412; Stephen J. Whitfield, *The Culture of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 1991); Elaine Tyler May, *Homeward Bound: American Families in the Cold War Era* (New York: Basic Books, 1988); Laura A. Belmonte, *Selling the American Way: U.S. Propaganda and the Cold War*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2008).

의 말론 브란도, 그리고 『7년만의 외출』과 『야생마』의 매릴린 먼로는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도전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이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메이는 그런 대항문화가 미국 영화계의 자생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윌 로저스(Will Rogers)를 비롯해 대공황 시대에 빈부격차와 인종질서를 비판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진보적 영화인들의 유산 위에서 자라났다는 것이다.<sup>24)</sup>

래리 메이의 연구는 영화의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에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피상적으로 취급하므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냉전 시대의 일반적 합의 아래에 뚜렷한 불안과 이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일련의 비판적 저술들이 간행되었고 또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런 저술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비드 리스먼과 윌리엄 화이트,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와 마이클 해링튼, 그리고 레이철 카슨과 베티 프리단의 작품이다. 이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따르는 사회심리학적 부작용과 고질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여성과 환경의 희생에 관해 주의를 환기했다.<sup>25)</sup> 더욱이 미국의 자유주의가 2차대전을 계기로 사회개혁 대신 경제성장으로 경도되었고 그와 동반해 기세등등한 낙관론이 확립되었지만, 대공황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상처는 1956년 록펠러재단에서 미국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국가적 목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특별 프로젝트 아래에 깔려 있었다. 그것은 또한 1960년에 와

24) Lary May, *The Big Tomorrow: Hollywood and the Politics of the American Way* (Chicago: Univ. of Chicago Pr., 2000).

25)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abridged ed. (1950, New Haven: Yale Univ. Pr., 1969); William H. Whyte, *The Organization Man* (1956,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2002); John Kenneth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1958); Michael Harrington, *The 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62, New York: Simon & Schuster, 1997); Rachel Carson, *Silent Spring* (1962, New York: Fawcett Crest, 1964); Betty Friedan, *The Feminine Mystique* (1963, New York: Dell, 1984).

서 국가적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한 데도 남아 있었다. 냉전은 미국인들에게 안이한 자세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sup>26)</sup> 그렇다면 냉전 시대의 정치적 타협과 문화적 일치는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합의의 한계는 근래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걸어온 이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 연구는 19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반세기의 세월을 경시하는데, 이 커다란 결함을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저 세월이 되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말해 기존 연구가 암시하는 것과 달리 보수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그 기간 내내 끊임없이 회의와 도전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20세기 중엽에 남아 있던 이견과 갈등이 개혁을 외치던 대공황 시대의 목소리를 이어받았다면, 그것은 이후 시대의 비판적 사조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항문화는 풍부한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갈증에 주의를 환기하며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회의를 조장했다. 더욱이,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했다. 실업과 빈곤, 범죄와 공해, 퇴보하는 삶의 질, 이런 폐단은 성장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에서 핵심적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sup>27)</sup> 실제로,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환경운동은 보수파가 말하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문제의 원천이 있다고 지적하고 끈질기게 변화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보수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겉으로 패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도전에 시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도전을 염두에 두면, 저 어구가 근래에 걸어온 이력에서 정치성을

26) Robert M. Collins, *More: The Politics of Economic Growth in Postwar America* (Oxford: Oxford Univ. Pr., 2000), 40-67.

27) Collins, *More*, 68-163.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짝막한 글에서 근래의 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만 눈에 띄는 용례를 중심으로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정치권에서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내는 일이다.

이런 각도에서 접근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정치권 가운데서도 그 중심부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에 주의를 환기할 때 자주 사용했다. 예를 들면 로널드 레이건은 1985년 3월에 있었던 라디오 연설에서 소련과 군축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소련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지 부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테러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며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관해 자주 언급했다. 그와 같은 용법은 존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같은 민주당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등장한다. 케네디는 1961년 4월 쿠바 침공이 실패로 끝난 직후에 미국의 안보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의 생활방식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클린턴은 1995년 4월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 폭파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화평,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세력”에 관해 언급했으며, 오바마는 2009년 1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수호할 것이라는 결의를 천명했다.<sup>28)</sup>

28) Ronald Reagan, Radio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MX Missile, 9 Mar. 1985. (2011. 8. 6; <http://www.presidency.uscb.edu/ws/index.php?pid=38302#ixzz1UDDLmArf>); George W. Bush,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the 9/11 Attacks, 20 Sept. 2001. (2011. 8. 6; <http://www.americanrhetoric.com/speeches/gwbush911jointsessionspeech.html>); idem, President’s Day Address: George Washington’s 275th Birthday, 19 Feb. 2007. (2011. 8. 6; <http://presidentialrhetoric.com/speeches/02.19.07.print.html>); John F. Kennedy, Address before the Americ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27 April 1961. (2011. 7. 15; <http://www.jfklibrary.org/Research/Ready-Reference/JFK-Speeches/The-President-and-the-Press-Address-before-the-American-Newspaper-Publishers-Association.aspx#>); William Jefferson Clinton, Oklahoma

그렇지만 이데올로기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보수파는 이전과 달리 풍요와 소비를 자주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련이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없었다면, 서구와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대신, 보수파는 사회적 화합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1988년 8월 레이건은 2차대전 동안 수용소 생활을 강요당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위로하면서, 미국사회의 다원성과 함께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에 뉴딜 정책을 계승하는 정치인들은 개혁 대신에 복지에 역점을 두고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거론했다. 예를 들어 린든 존슨은 1966년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면서 “위대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방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표도 세워야 한다.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9)</sup> 이런 용법의 차이는 1930년대 중엽에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다. 20세기 중엽에 형성된 이념상의 합의가 그만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런 합의 아래에서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놓고 정치적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점은 정치권의 중심부 대신에 주변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요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정치권 바깥에서 시작되어 안쪽으로 진입하는 티파티(Tea Party) 운동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운동은 그

---

Bombing Memorial Prayer Service Address, 23 April 1995. (2011. 8. 6; <http://www.americanrhetoric.com/speeches/wjckoklahomabombingspeech.htm>); Barak H. Obama, Inaugural Address, 20 Jan. 2009. (2011. 8. 6; <http://www.whitehouse.gov/blog/inaugural-address>).

29) Ronald Reagan, Remarks on Signing the Bill Providing Restitution for the Wartime Internment of Japanese-American Civilians, 10 April 1988. (2011. 8. 6; <http://history.wisc.edu/archdeacon/404tja/redress.html>); Lyndon B. Johnson, Annual Budget Message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66, 25 Jan. 1966. (2011. 8. 6;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7041#ax221UD0fL0fQ>).

명칭에서 1773년 보스턴에서 벌어졌던 “다과회” 사건을 연상시키며 “세금이 너무 지나치다”(Taxed Enough Already)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그런 명칭으로 집약되지 않는 다양한 요구도 있는데, 이는 티파티 운동이 전국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지방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 계기는 2009년 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데 있었다. 그것은 뉴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서, 의료, 교육, 에너지, 하부구조 등 분야에 총액 7,8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불과 2주일이 지나지 않아, 전국 22개 도시에서 그에 항의하는 모임이 나타났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가 보이는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와 해외원조, 그리고 군비증강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수많은 공무원을 채용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며 시장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금과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복지 행정 같은 업무를 연방에서 주로 넘기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새라 페일린을 비롯해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정치인을 워싱턴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sup>30)</sup>

그런 주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티파티 운동이 워싱턴 정계에 대한 분노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운동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대개 중장년층에 속하는 백인 남성이며 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이 예산을 낭비하는 비대한 정부 아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비와 해외원조를 삭감하고 예산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며 작은 정부를 실현하면 사회보장제도

30) Laura Meckler, Obama Signs Stimulus into Law, *Wall Street Journal*, 18 Feb. 2009; Philip Dennis, Tea Party Leader: What We Want, CNN, 15 Apr. 2010. (2011. 8. 9; [http://articles.cnn.com/2010-04-15/opinion/dennis.tea.party.goals\\_1\\_tea-party-stimulus-bill-pork-spending/2?\\_s=PM:OPINION](http://articles.cnn.com/2010-04-15/opinion/dennis.tea.party.goals_1_tea-party-stimulus-bill-pork-spending/2?_s=PM:OPINION)); Brandi Grissom, Tea Party Sets the Agenda, and Legislators Fall in Line, *New York Times*, 22 May 2011, 25A.

의료보호제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공화당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끌려 다닌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오바마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미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간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티파티 운동은 인종주의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조야한 증오심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바마나 민주당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며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허물어뜨리는 공적으로 간주된다. 이는 그들이 운영하는 여러 웹사이트뿐 아니라 자주 부르는 전승 가요에서도 드러난다. 거기에는 이런 후렴 구절이 들어 있다. “되찾아오세, 우리나라를 되찾아오세. 이제 우리의 생활방식이 공격을 당하고 있네. 이제는 선을 긋고 저들이 알게 하세. 우리의 소중한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되찾아오세.”<sup>31)</sup>

그와 같이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정치적 언어로 활용하는 사례는 정치권의 반대편 주변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American Way)이 시민적 자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은 1981년 시트콤 작가 노먼 리어(Norman Lear)가 흑인 여성 정치인 바바라 조던(Barbara Jordan), 노트르데임 대학 총장 시오도어 헤스버그(Theodore Hesburgh) 등과 함께 종교적 우파의 대두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레이건의 집권을 계기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세력을 확대하자, 리어 등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이해, 인종주의에 대한 경계를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활동은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대중 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광고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연방 대법원 판사의 인준 과정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

31) Kate Zernike et al., *Discontent's Demography: Who Backs the Tea Party*, *New York Times*, 15 Apr. 2010, 1; Kate Zernike, *NAACP Report Raises Concerns about Racism within Tea Party Groups*, *New York Times*, 21 Oct. 2010, 23; Ben McGrath, “The Movement: The Rise of Tea Party Activism,” *New Yorker*, 1 Feb. 2010, 40-49.

1987년 레이건이 보수파에 속하는 로버트 보어크(Robert H. Bork)를 연방 대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했을 때,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영화 배우 그레고리 펙크의 입을 빌려 보어크의 완고한 성향을 비판하는 광고를 제작해 널리 주목을 끌었다. 2005년에도 보수파 판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광고를 제작했으나 인준 저지에 실패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기부금이 줄어들며 조직과 활동도 움츠러들었다. 그래도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경시할 수 없는 위상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sup>32)</sup>

그들이 말하는 “미국식”은 티파티 운동에서 거론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띤다. 세금 감면이나 예산 삭감, 정부기구 축소 같은 것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미국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시민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1981년 창설과 함께 설정된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사명에 따르면, “우리의 취지는 불화와 분열이라는 난관을 ‘미국식’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하자는 데 있다. 이 어구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원주의, 개인의 존엄성, 사상과 표현과 종교의 자유, 공동체 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과 공감이다.” 이런 가치는 1996년에 제정된 행동 강령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국가를 건설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소중하게 여겨온 이상이다. 강령은 이런 서문으로 시작된다.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식을 규정하는 근본적 가치를 확신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평등한 기회, 탐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시민생활에 참여하는 권리, 공동체와 가족, 사회적·개인적 책임, 공평성과 정의, 다원주의와 다양성이다. 이들 가치는 우리 국가의 창건 문서에 쓰여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집단적 정신 속에 새겨져 있다. 미국인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를 세웠고, 그것을 수

32) Angie Cannon, Full-Court Press, *U.S. News & World Report*, 14 Feb. 2005, 34; Paul Singer and Lisa Caruso, The Battle Is Joined, *National Journal*, 9 July 2005, 2192-2196; Julie Kosterlitz, Will People for the American Way Rebound?, *National Journal*, 29 May 2010, 12.



호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을 향유하며 두 세기 넘게 자유와 번영을 누렸다.<sup>33)</sup>

한마디로 줄이면,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든 미국인이 시민적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민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이해하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티파티 운동에서 거론되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좁은 뜻에서 정치적 언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권의 주변부에서 미국의 역사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상치되는 전망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티파티 운동에서는 레이건이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뉴딜의 전통에 전후 해방운동의 이상을 덧붙여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 이 선명한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권의 중심부에서 보이는 미묘한 차이와 분명히 구분된다. 더욱이 주변부에 있는 세력들은 상이한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중심부에 압력을 넣으며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 어구는 짙은 정치색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선명한 정치색을 띠고 있다. 1930년대 중엽에 세인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을 때,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정치권력을 놓고 보수파와 개혁파가 벌였던 치열한 갈등에서 각각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는 언어로 사용되었다.

---

33) People for the American Way, *Our Values: Defining the American Way*. (2011. 8. 5; <http://www.pfaw.org/print/10900>) 다음 자료도 보라. Mission of People for the American Way, <http://www.pfaw.org/print/10903>.

오늘날에도 그것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보수파와 진보적 이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파 사이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들 시기 사이에 끼어 있는 20세기 후반의 두 세대 동안에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흔히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정치성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의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그것이 1930년대 중엽에 정치권의 중심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또 최근에는 중심부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주변부에서 짙은 색깔을 띠고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20세기 중엽 이후에는 넓은 이념상 합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미국인의 생활방식”에 관한 논쟁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것으로 보인다. 이 점도 덧붙여 말할 수 있다. 이런 외형상의 변화에는 내용상의 변화도 수반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 예를 들면 대중소비와 물질적 풍요는 20세기 중엽에 보수파가 역설하던 핵심적 가치였지만,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다음부터는 사실상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독일과 일본의 경제성장, 소련의 정체 내지 후퇴 등,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70년대에 대두한 환경주의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요즘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sup>34)</sup> 그런 변화를 추적하면 “미국인의 생활방식”의 정치적 이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언어로서 그런 정치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실천으로서도 깊이 탐구해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언어는 실천과 분리되지 않는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역사적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인 동시에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구호로

34) 예를 들어 다음 웹사이트를 보라. <http://www.energybulletin.net/node/46276>; <http://www.wakeupamerika.com/PDFs/On-American-Sustainability.pdf>; [http://culturechange.org/cm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24&Itemid=1](http://culturechange.org/cm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24&Itemid=1).

서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활방식이란 결국 문화, 즉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며 느끼는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병존하며 변전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론은 생활방식이 미국에서 유난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특수성은 미국이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가라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수많은 이민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은 특정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건설되었고, 그것은 미국 정치에서 정통성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건국 정신을 거론하며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지키자고, 또는 되살리자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실천으로서의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미국의 문화사와 정치사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Works Cited

- Belmonte, Laura A. *Selling the American Way: U.S. Propaganda and the Cold War*.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2008.
- “Bourke-White, Margaret.” *Britannica Biographies*. (2010. 10. 1)
- Bush, George W.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the 9/11 Attacks, 20 Sept. 2001. (2011. 8. 6; <http://www.americanrhetoric.com/speeches/gwbush/911jointsessionspeech.html>)
- \_\_\_\_\_. President’s Day Address: George Washington’s 275th Birthday, 19 Feb. 2007. (2011. 8. 6; <http://presidentialrhetoric.com/speeches/02.19.07.print.html>)
- Cannon, Angie. Full-Court Press. *U.S. News & World Report*, 14 Feb. 2005, 34.
- Carson, Rachel. *Silent Spring*. 1962, New York: Fawcett Crest, 1964.
- Clinton, William Jefferson. Oklahoma Bombing Memorial Prayer Service Address. 23 April 1995. (2011. 8. 6; <http://www.americanrhetoric.com/speeches/wjcoklahomabombingspeech.htm>)
- Collins, Robert M. *More: The Politics of Economic Growth in Postwar America*. Oxford: Oxford Univ. Pr., 2000.
- Culture Change. [http://culturechange.org/cm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24&Itemid=1](http://culturechange.org/cm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24&Itemid=1).
- Dennis, Philip. Tea Party Leader: What We Want. CNN, 15 Apr. 2010. (2011. 8. 9; [http://articles.cnn.com/2010-04-15/opinion/dennis.tea.party.goals\\_1\\_tea-party-stimulus-bill-pork-spending/2?\\_s=PM:OPINION](http://articles.cnn.com/2010-04-15/opinion/dennis.tea.party.goals_1_tea-party-stimulus-bill-pork-spending/2?_s=PM:OPINION))
- DeVoto, Bernard. “The Easy Chair: Notes on the American Way.” Harper’s, May 1938, 669-672.
- Energy Bulletin. <http://www.energybulletin.net/node/46276>.
- Fones-Wolf, Elizabeth A. *Selling Free Enterprise: The Business Assault on Labor and Liberals, 1945-60*. Urbana: Univ. of Illinois Pr., 1994.
- Friedan, Betty. *The Feminine Mystique*. 1963, New York: Dell, 1984.
- Galbraith, John Kenneth. *The Affluent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1958.
- Griffith, Robert. “The Selling of America: The Advertising Council and American Politics, 1942-1960.” *Business History Review* 57: 3 (Autumn 1983); 388-412.
- Grissom, Brandi. Tea Party Sets the Agenda, and Legislators Fall in Line.

- New York Times*, 22 May 2011, 25A.
- Harrington, Michael. *The 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62, New York: Simon & Schuster, 1997.
- Herberg, Will. *Protestant-Catholic-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New York: Doubleday, 1955.
- Hodges, William V. “Realities Are Coming.” *Saturday Evening Post*, 21 April 1934, 5-7, 44, 46.
- Johnson, Lyndon B. Annual Budget Message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66, 25 Jan. 1966. (2011. 8. 6;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7041#ax221UD0fLofQ>)
- Johnson, Richard. “Defending Ways of Life: The (Anti-)Terrorist Rhetorics of Bush and Blair.” *Theory, Culture & Society* 19: 4 (2009): 211-231.
- Kennedy, David M. *Freedom from Fear: The American People in Depression and War, 1929-1945*. New York: Oxford Univ. Pr., 1999.
- Kennedy, John F. Address before the Americ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27 April 1961. (2011. 7. 15; <http://www.jfklibrary.org/Research/Ready-Reference/JFK-Speeches/The-President-and-the-Press-Address-before-the-American-Newspaper-Publishers-Association.aspx#>)
- Kosterlitz, Julie. Will People for the American Way Rebound? *National Journal*, 29 May 2010, 12.
- Landon, Alfred M. “The American Way of Life: Two Addresses.” *Vital Speeches of the Day*, 1 Sept. 1936, 732-737.
- McClymer, John F. “Gender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Women in the Americanization Movement.”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0: 3 (Spring 1991), 3-20.
- McGovern, Charles F. *Sold American: Consumption and Citizenship, 1890-1945*.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 2006.
- McGrath, Ben. “The Movement: The Rise of Tea Party Activism.” *New Yorker*, 1 Feb. 2010, 40-49.
- Mathews, Mitford M., ed. *A Dictionary of Americanisms on Historical Principles*. 2 vols. Chicago: Univ. of Chicago Pr., 1951.
- May, Elaine Tyler. *Homeward Bound: American Families in the Cold War Era*. New York: Basic Books, 1988).

- May, Lary. *The Big Tomorrow: Hollywood and the Politics of the American Way*. Chicago: Univ. of Chicago Pr., 2000.
- Meckler, Laura. Obama Signs Stimulus into Law. *Wall Street Journal*, 18 Feb. 2009.
- Obama, Barak H. Inaugural Address, 20 Jan. 2009. (2011. 8. 6; <http://www.whitehouse.gov/blog/inaugural-address>)
- People for the American Way. *Our Values: Defining the American Way*. (2011. 8. 5; <http://www.pfaw.org/print/10900>)
- \_\_\_\_\_. *Mission of People for the American Way*. <http://www.pfaw.org/print/10903>.
- Reagan, Ronald. Radio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MX Missile, 9 Mar. 1985. (2011. 8. 6; <http://www.presidency.uscb.edu/ws/index.php?pid=38302#ixzz1UDDLmArf>)
- \_\_\_\_\_. *Remarks on Signing the Bill Providing Restitution for the Wartime Internment of Japanese-American Civilians*, 10 April 1988. (2011. 8. 6; <http://history.wisc.edu/archdeacon/404tja/redress.html>)
- Richman, Sheldon. "A Matter of Degree, Not Principle: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Liberty Leag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6: 2 (Spring 1982): 145-167.
- Riesman, David.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Abridged ed. 1950, New Haven: Yale Univ. Pr., 1969.
- Roosevelt, Franklin D. "A Rendezvous with Destiny: The War Goes on." *Vital Speeches of the Day*, 15 July 1936, 634-636.
- Rosenof, Theodore. "The Economic Ideas of Henry A. Wallace, 1933-1948." *Agricultural History*, 41: 2 (April 1967): 143-154.
- Rudolph, Frederick. "The American Liberty League, 1934-1940." *American Historical Review* 56: 1 (Oct. 1950): 19-33.
- Schlesinger, Arthur M., Jr. *The Politics of Upheaval*.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 Singer, Paul, and Lisa Caruso. *The Battle Is Joined*. *National Journal*, 9 July 2005, 2192-2196.
- Tagg, John. "Melancholy Realism: Walker Evans's Resistance to Meaning." *Narrative* 11: 1 (Jan. 2003): 3-77.

- Text of Bush's Address, 11 September 2001. (2011. 7. 8; [http://articles.cnn.com/2001-09-11/us/bush.speech.text\\_1\\_attacks-deadly-terrorist-acts-despicable-acts?\\_S=PM:US](http://articles.cnn.com/2001-09-11/us/bush.speech.text_1_attacks-deadly-terrorist-acts-despicable-acts?_S=PM:US))
- Wake Up Amerika. <http://www.wakeupamerika.com/PDFs/On-American-Sustainability.pdf>.
- Wallace, Henry A. "The Search for an American Way." Scribner's, July 1936, 22-27.
- Wall, Wendy L. *Inventing the "American Way": The Politics of Consensus from the New Deal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Oxford: Oxford Univ. Pr., 2008.
- Watts, Steven. *The Magic Kingdom: Walt Disney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Columbia: Univ. of Missouri Pr., 1997.
- Westbrook, Robert B. *Why We Fought: Forging American Obligations in World War II*. Washington, D.C.: Smithsonian Books, 2004.
- Whitfield, Stephen J. *The Culture of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 1991.
- Whyte, William H. *The Organization Man*. 1956,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2002.
- Young, Dannagal Goldthwaite. "Sacrifice, Consumption,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Advertising and Domestic Propaganda during World War II." *Communication Review* 8: 1 (Jan.-Mar. 2005): 27-52.
- Zernike, Kate. NAACP Report Raises Concerns about Racism within Tea Party Groups. *New York Times*, 21 Oct. 2010, 23.
- Zernike, Kate, et al. Discontent's Demography: Who Backs the Tea Party. *New York Times*, 15 Apr. 2010, 1.

- 논문 투고일자: 2012. 3. 30
- 심사(수정)일자: 2012. 4. 21
- 게재 확정일자: 2012. 5. 11

## Abstract

# The Political Career of “the American Way of Life”

Youngsoo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hows that “the American way of life” refers to much more than the cultural consensus of mid-20th-century America.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hackneyed phrase has a political significance more distinct than is suggest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argument is based on an investigation into the rise of that phrase and a survey of its current usages as well. The phrase obtained currency in the mid-1930’s when Americans endeavored to shape a program that would lead the US back to prosperity. In 1934 the American Liberty League began denouncing the New Deal that was allegedly threatening independent individuals, free enterprise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of which Alfred M. Landon made repeated use in his 1936 presidential campaign. F.D.R. won the campaign in part by reprehending giant corporations that were bringing unexpected changes to “the American way of life” as well as to America’s material life. Today, Americans find the commonplace phrase more often in the periphery of their political world than in the center. It i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Tea Party movement that cherishes neo-liberal values preached by Ronald Reagan. On the other hand, it is in constant use among “the People for the American Way” who seek to keep alive the ideal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of the 1960’s.

## Key Words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뉴딜(New Deal), 미국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 앨프리드 랜든(Alfred M. Landon), 티파티(Tea Party), 미국식을 옹호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American Way)